

<div data-bbox="204 353 569 44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1 465 512 510" data-label="Text"> <p>2013. 3. 25.</p> </div>	<div data-bbox="646 248 767 3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32 248 1287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강동혁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3. 3. 25.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심의·의결

1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 논의배경

-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현재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은 성범죄, 뇌물, 사기, 증권·금융 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일선 법원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하는 상한 이탈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
-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기존 양형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일응 참작동기 살인유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전·후 형량범위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참작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참작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동기 살인	6년-10년	9년-13년	12년-17년	보통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바난동기 살인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바난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결합 살인	14년-18년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부 수정

-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
- ‘잔혹한 범행수법’은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유는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

■ 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

○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 수정

- 살인미수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하나인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 중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라는 전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해의 주수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형을 가중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

○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에 아래와 같이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부분을 추가

■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 살인미수범죄 서술식 기준 수정

-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에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형량범위를 명확히 정함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의 양형기준 설정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 예정) 제10조 제1항에서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

②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기존 양형기준의 강화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향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범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7년 -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6년 - 9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합

- 다음과 같이 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6년 - 10년	7년 - 10년 9년 - 13년	9년 - 13년 12년 - 17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하한을 일부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 무기 13년 이상, 무기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의 양형인자 삭제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

■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

- 2012. 12. 18. 개정된 형법,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령(2013. 6. 19. 시행예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10페이지 이하 상세)

③ **향후 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3. 3. 26. ~ 4. 10. :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3. 4. 22.(월) 16:00 개최 예정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1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의 논의 배경

- 살인범죄의 경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성범죄,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러한 지적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
-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일응 참작동기 살인유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

○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

- ‘잔혹한 범행수법’은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유는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

2 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

○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 수정

-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어느 정도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가중인자인 ‘중한 상해’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다수의 살인

미수범죄에 있어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 중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라는 전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해의 주수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형을 가중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함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참작동기 살인 유형(제1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

- 현재 제1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의 예시로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장기간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자기 또는 친족이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등)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①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②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도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실무상 이를 참작동기 살인 유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참작동기 살인 유형’이 아닌 ‘보통동기 살인 유형(제2유형)’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함
- 기존의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에 아래와 같이 ‘비관에 의한 친족 살인’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실무상 ‘참작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동기 살인 유형’의 적용에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함

■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 살인미수범죄 서술식 기준 수정

-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기존의 서술식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살인죄 권고영역에 “무기” 또는 “무기 이상”이 포함된 경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 단서에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형량범위를 명확히 정함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의 양형기준 설정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 예정)은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한편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등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닌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되어 있고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동일하므로, 신설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살인범죄 제4유형에 포섭함

II.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안 주요내용

① 기존 양형기준의 강화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향의 논의배경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범위 반(특수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7년 -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폭범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6년 - 9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인데 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가중영역이 [12년 이상, 무기]로 되어 있어서, 13세 미만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하여 1개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권고형량 범위가 사망하였을 때 보다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의 양형인자 수정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

2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

○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2013. 6. 19. 시행)

- 형법 : 성년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신설 (각 징역 2년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강간 /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 5년 이상 → 무기, 5년 이상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위계·위력 유사강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강제추행, 위계·위력 강제추행 : 1년 이상 → 2년 이상
 - (2)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규정 신설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7년 이상
 - 강간 등 치사 : 사형, 무기, 10년 이상

○ 형법상 신설된 죄의 권고형량 설정

- 성년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6년 - 10년	7년 - 10년 9년 - 13년	9년 - 13년 12년 - 17년

-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아청법상 처벌강화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수정

-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변동없음)

- 청소년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죄는 개정 전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유형에는 개정 청소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등이 함께 포섭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형량범위를 수정하지 않음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상향)

- 다만 청소년 유사강간은 기존에 성년자 대상 유사강간과의 구분 없이 '강제유사성교'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의 상향된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면서 청소년강간과 같이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

[수정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6년 - 10년	7년 - 10년 9년 - 13년	9년 - 13년 12년 - 17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상향)

[현행 양형기준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수정 양형기준표 서술식 기준과 같이 형량범위 감경률을 1/2에서 2/3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형기준 상향

[수정 양형기준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¹/2로 감경

- 신설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 설정

- 처벌규정은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각 해당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음

[현행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 및 기본범죄의 내용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①성년 유사강간, ②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③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④ 청소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포섭하기로 함

① 성년 유사강간(변동없음)

종전과 같이 2유형에 포섭

②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상향)

- 기존 1유형 포섭
- 2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③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변동없음)

- 기존 3유형 포섭
- 3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④ 청소년 유사강간(상향)

- 기존 2유형 포섭
- 3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수정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III. 향후 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3. 3. 26. ~ 4. 10. :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3. 4. 22.(월) 16:00 개최 예정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